

선교 편지

2026년 8월호.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며칠 사이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여전하며, 여러가지 자연 재해와 재난 소식에 안타까움과 함께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 파시피코 교회 사역

파시피코 교회의 호세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함께 예배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시작되고 그동안 멈춰 있던 기타교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는 적지만 지역 사회와 접촉점을 만들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는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던 한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새로운 지역에서도 믿음생활 잘 하기를 기도해주었습니다.

✦ 마약 재활센터 사역

매월 첫 주와 셋째 주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둘째와 넷째 주는 성경공부나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현지인들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셋째 주는 한인교회 선교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며 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말씀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어린이 성경공부(벤디시온 교회)

어린이 사역을 돕고 있는 벤디시온 교회는 매주 토요일에 각 학년별로 나뉘어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각 반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선교센터 건축

선교센터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 한글 학교

한글학교는 이번 8월에는 쉬었습니다. 이곳 학생들도 휴가철이어서 한달 간은 쉬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 학생 모집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 설교 사역

파시피코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마약재활센터에서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네 딸 이야기

지난 8월 21일에 둘째 하진이와 넷째 하민이가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진이는 칼빈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민이도 하나님의 기적같은 인도하심 속에 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번에 기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의 학비가 은혜로 채워졌고, 막내의 아르바이트도 바로 구해졌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주신 대로 학교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 ✓ 파시피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호세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 ✓ 재활센터의 입소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소서.
- ✓ 재활센터 사역에서 주어진 회계, 설교와 찬양인도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 ✓ 어린이 성경교재를 받은 7교회와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
- ✓ 교회와 교사의 헌신으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 ✓ 선교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 ✓ 네 딸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 ✓ 둘째 하진이 막내 하민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게 하소서.
- ✓ 저와 아내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